

김도영이 돌아왔다…“길었던 공백만큼 팀 승리 기여”

햄스트링 부상 이후 67일만 복귀

1군 엔트리 등록…“몸 상태 완벽”



“좋았던 타격감을 찾아서 팀 승리에 기여하겠습니다.”

KIA 타이거즈 ‘슈퍼스타’ 김도영이 1군 복귀와 함께 이같이 밝혔다.

김도영은 지난 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한화이글스와의 주말 2차전에 앞서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지난 5월 27일 키움하어로즈전에서 2루 도루를 시도하다가 오른쪽 햄스트링을 다친 지 67일 만이다.

지난해 프로야구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에 오른 김도영은 올 시즌 부상에 허덕였다. 지난 3월 22일 NC다이노스와 개막전에서 주루 중 왼쪽 햄스트링을 다친 뒤 손상 1단계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약 한 달 동안 전력에서 이탈한 뒤 4월 25일 LG트윈스전을 통해 복귀했으나 한 달 만에 반대쪽 햄스트링을 또 다쳤다. 오른쪽 햄스트링 손상 2단계 진단을 받은 김도영은 두 달이 넘도록 재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최근 몸 상태를 회복한 김도영은 지난달 22일 재검진에서 ‘이상 없음’ 소견을 받은 뒤 본격적인 기술 훈련을 시작했고, 지난 1일 2군에서 목포과학기술대와 연습경기에 출전해 몸 상태를 점검했다. 이어 2일 한일장신대와 연습경기에 한 번 더 출전한 뒤 1군에 합류할 계획이었으나, 조기 등록을 결정했다.

지난 2일 광주-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만난 김도영은 “감독님과 선수들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아무래도 올해 2번을 다쳐서 선수단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선배님들이나 동료들 다 아쉽다는 눈치가 있었다”며 “그래서 저도 웃음이 나왔다”고 했다.

두 번의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김도영은 재할 기간 빠른 회복에 집중했다.

그는 “초반에 쉬면서는 부상에 대해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 저녁에 집에 있으면 야구를 보게 돼서 친구들이 집에서 빼졌다”면서 “덕분에 힐링해서



김도영은 지난 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5 신한 SOL Bank KBO리그 한화이글스와의 주말 2차전에 앞서 1군 엔트리에 등록됐다. 지난 5월 27일 키움하어로즈전에서 2루 도루를 시도하다가 오른쪽 햄스트링을 다친 지 67일 만이다. 사진은 지난 5월 23일 KIA 타이거즈-삼성 라이온즈 경기에서 8회초 김도영이 2점 홈런을 치고 포효하는 모습.

친구들에게 고맙다. 그래서 회복이 빨랐다. 부상당 할 때 야구를 보면 힘들다”고 설명했다.

김도영은 지난 시즌 141경기 544타수 189안타 38홈런 109타점 143득점 40도루 타율 0.347로 리그를 점령했다. 최연소·최소경기 30홈런·30도루, 최소타석 내추릴 사이클링 히트 등 다양한 대기록을 쏟아내기도 했다. 다만 올 시즌 부상 이후에는 온전한 타격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재활기간 수비에 비중을 많이 줬다. 수비는 느낌이 괜찮았다”면서도 “그런데 방망이는 챔필에서 오랜만에 치다 보니 아직 느낌을 잘 모르겠다. 그래도 금방 감을 찾는 게 좋은 선수다. 저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부상을 야기했던 도루에 대해서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도영은 “구단에서 복귀 일정을 여유롭게 잡아

주셨다. 완벽히 나은 상태라 될 준비가 되었다”면서 “(감독님께서) 당연히 뛰지 말라고 하시겠지만, 사인만 있다면 언제든지 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후반기 남은 경기에서 팀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 또한 전했다.

김도영은 “(경기에) 빠진 만큼 당연히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타격감을 찾아서 승리에 기여하겠다. 아직은 훈련하면서 자신감을 얻어가

야 하는 상태”라며 “저는 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후반기 경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팬들에게는 “팬들께서 항상 복귀만 되면 서두르지 말고 말 좀 많이 해주신다”며 “저도 성수해졌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복귀할 때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손흥민, 美서 초특급 대우받나…‘연봉 톱3’ 전망

부스케츠보다 많이 받을 듯…“북중미 월드컵에 모든 걸 쏟아 부을 것”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와 ‘작별’을 선언한 손흥민(33)이 미국프로축구(MLS) ‘톱3’에 들어가는 연봉을 약속받고 로스앤젤레스 FC(LAFC) 유니폼을 입을 것이라던 현지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LAFC와 토트넘 사이의 손흥민 이적 계약 성사가 임박했다고 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과 뉴캐슬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이후 양측의 협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거란 얘기다.

이 매체는 “LAFC와 손흥민의 개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거의 완료됐으며, 손흥민은 이미 LAFC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손흥민은 현재 MLS 연봉 3순위인 미드필더 세르히오 부스케츠(마이애미)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부스케츠는 현재 870만달러(약 120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손흥민이 이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다면, MLS 연봉 순위에서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2040만달러·마이애미), 로렌초 인시네(1540만달러·토론토)에 이어 3위를 차지하게 된다.

인시네는 올여름을 끝으로 토론토와 계약이 끝났기에 손흥민은 사실상 2위가 될 수 있다.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던 골잡이 토마스 뮐러가 곧 댈러스 화이트캡스에 입단할 거로 보여 순위표 상단이 더 바뀔 수도 있다. 토트넘과 LAFC는 이적료를 놓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LAFC는 2000만달러(약 277억원)를 주길 원하며, 토트넘은 2700만달러(375억원)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기브미스포츠는 “톱3는 2700만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바라지만, 손흥민의 이적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이적료가 2000만달러 쪽에 가까운 거로 LAFC를 낙관하게

하고 있다”고 썼다.

두 행사에는 각각 선수단과 임원 등 300여명이 참가해 국제 교류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여자 포환던지기 세계 정상급 지도자인 나탈리아 리소브스카야(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장정릉(중국), 구엔(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국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육상 지도자 강습회도 함께 마련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최근 광주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우미건설 소속 장애인체육 선수 입단식&취원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주장애인체육회, 우미건설 선수 입단식 개최

8개 종목·8명 채용…“다양한 협력 모델 만들 터”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1일 광주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우미건설 소속 장애인체육 선수 입단식&취원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입단식에는 한상득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김현성 사무처장,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 안창범 호남지사장, 송춘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본부장 등 내빈을 포함해 새로 입사하게 된 8개 종목 8명의 장애인체육 선수들이 참석했다.

이번 우미건설 장애인스포츠팀 선수 채용은 광주시장에인체육회의 ‘장애인체육 선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우미건설의 장애인 취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이라는 목적이 만나 성사됐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지난 6월 홈페이지 공고고를 통한 공개채용을 통해 우미건설 소속 장애인체육 선수 지원자를 모집했다. 이후 서류·면접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8인이 채용, ‘우미건설 장

아인체육 선수’로 활동하게 됐다.

채용된 선수들은 종목별 지정 훈련장에서 훈련 및 대회참가 등으로 근무를 대체하며, 광주시장에인체육회는 종목별로 담당자 지정 및 선수관리 등의 근태 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김영길 우미건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선수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우미건설은 상생의 실천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으로 ESG 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에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장애인체육 선수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류 종합건설사인 우미건설과 뜻을 함께해 기쁘다”며 “추후에도 장애인체육 선수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협력 모델을 광주시·고용공단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목포서 ‘2025 아시아투척선수권대회’ 열린다

21~22일 20개국 172명 참가…국내·외 정상급 총출동

전남 목포에 아시아 투척 강자들이 모인다.

3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전남 목포에서 ‘2025 아시아투척선수권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육상연맹과 대한육상연맹, 목포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도체육회와 전남육상연맹이 후원해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는 국내 최고의 투척 전문 대회인 ‘제21회 목포전국육상투척경기대회’와 동시에 열려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

여 기량을 겨루는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중국, 일본,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 25개국에서 250여명(선수 180명, 임원 7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포환던지기, 원반던지기, 해머던지기, 창던지기 등 남녀 총 8개 종목에서 수준 높은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항저우아시아인게임 여자 해머던지기 동메달리스트이자 한국신기록 보유자인 김태희(익산시청)와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 남자

해머던지기 신기록 보유자인 애쉬러프 앵가드 엠 아엘시아파(카타르)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투척 강자들이 대거 참가한다.

대회 개최식은 20일 오후 6시 신안비치호텔 2층 비발디홀에서 열리며, 환송연은 22일 상그리아비치관광호텔에서 진행된다.

이 참석해 국제 교류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여자 포환던지기 세계 정상급 지도자인 나탈리아 리소브스카야(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장정릉(중국), 구엔(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국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육상 지도자 강습회도 함께 마련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